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8월 26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8. 25.(수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8. 25.(수)	담당부서	무역기술장벽협상과
담당과장	박재훈 과장(043-870-5540)	담 당 자	강민구 사무관(043-870-5542)

제5차 한-중 자유무역협정(FTA) 무역기술장벽위원회 개최
- 중국 기술 규제에 대한 애로 해소 논의, 소비자 안전 분야 협력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**(원장 이상훈)은**「제5차 한-중 자유무역협정(FTA) 무역기술장벽(TBT*)위원회**(이하 '한-중 TBT위원회'라 함)」를 8월 25일(수) 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.

* TBT(Technical Barriers to Trade): 국가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, 표준, 인증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 요소

○ 우리 측은 **김규로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,** 중국 측은 **정춘징(Zheng Chunjing)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제협력사 부사장**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.

< 제5차 한-중 FTA TBT 위원회 개요 >

▶ 목적 : 한-중 TBT 애로 해소 및 제품안전 분야 등 협력 방안 논의

▶ 일시/장소 : '21.8.25.(수) 15시~ / 국가기술표준원 국제회의실

▶ 참석자 : (한국) 산업통상자원부 김규로 기술규제대응국장 등 7명
(중국) Zheng Chunjing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제협력사 부사장 등 10명

○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**중국의 과도한 기술규제**로 인한 **우리 기업의 애로사항**을 **전달**하고 **해소 방안**을 **모색**했으며, **소비자 제품 안전 분야** 등의 **협력 방안**도 **논의**하였다.

□ '15년 **한·중 FTA 발효 이후** 개최된 TBT위원회를 통해 **중국측**은 **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규제(RoHS*)**인증 **절차**를 **개선****하고 시행을 유예하였으며, **전기차배터리 안전기준**의 **시행**도 **유예**한 바 있다.

* RoHS: 전기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유해물질 6종(납, 수은, 카드뮴, 6가크롬, 폴리브롬화 비페닐(PBB),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티르(PBDE) 및 화합물 등)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

** (기존)중국內 제3의 기관에서만 시험가능→(개선)제조자 자기적합성 검증 가능

□ 이번 위원회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의 ①**상용 암호 관리조례**(안), ②**휴대 기기용 배터리,** ③**전기차용 동력배터리** 등 대한 우리 정부의 요청 사항을 **중국 측**에 **전달**하였다.

① 중국이 제정 예정인 **'상용 암호 관리조례(안)'**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휴대폰 등 **소비류 제품**을 **규제대상**에서 **제외**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, 시험·인증과정 중 **지식재산권**이나 **영업기밀 사항**을 **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**을 **명시**해줄 것을 요청하였다.

② 개정 예정인 중국의 **휴대기기용 배터리** 표시 기준에서는 '셀 제조자와 완제품 제조사 간 합의된 경우 **부품으로 사용하는 셀**에는 **정보**를 **표시**하지 **않을 수 있다**'는 **현행 예외조항**을 **유지**하도록 요구하였다.

③ 중국에서 **'신에너지 자동차표준화 작업요강'** 발표 및 **해당표준**의 초안 작업 진행을 공고('20.4월, 공업화정보부)하였으나,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우리기업의 준비가 어려운 상황으로 **시행일정 및 주요 내용**을 **요청**하였다.

* 전기차 동력배터리 순환수명요구, 성능요구 및 시험방법 등(GB/T34184, 34186)

□ 또한, 양국은 소비자 제품안전을 위한 **상호 제도에 대한 현황**을 **공유**하고 **국표원**이 **운영 중인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**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등 양국이 **리콜제품** 판매를 효과적으로 **차단**할 수 있는 **협력방안**을 논의하였다.

□ 우리측 수석대표인 **국가기술표준원 김규로 기술규제대응국장**은 "중국이 최근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 **내수 기반 중국 국내 경제 대순환*** **정책 추진**을 발표함에 따라 중국의 **기술규제가 강화**될 것으로 **예상**되며, 이에 **대비가 필요**하다"면서,

* 글로벌 공급망과 별개로 중국 거대시장과 잠재수요를 활용하여 생산·분배·유통·소비의 모든 단계를 중국 국내 시장에서 실현

○ "중국이 시행하게 될 **기술규제**들을 **사전에 발굴**하여, **한·중 TBT 위원회** 및 **WTO TBT위원회 등**과 같은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**우리 기업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**하고, **해결 방안**을 **논의**하겠다"고 말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협상과 강민구 사무관(☎043-870-554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